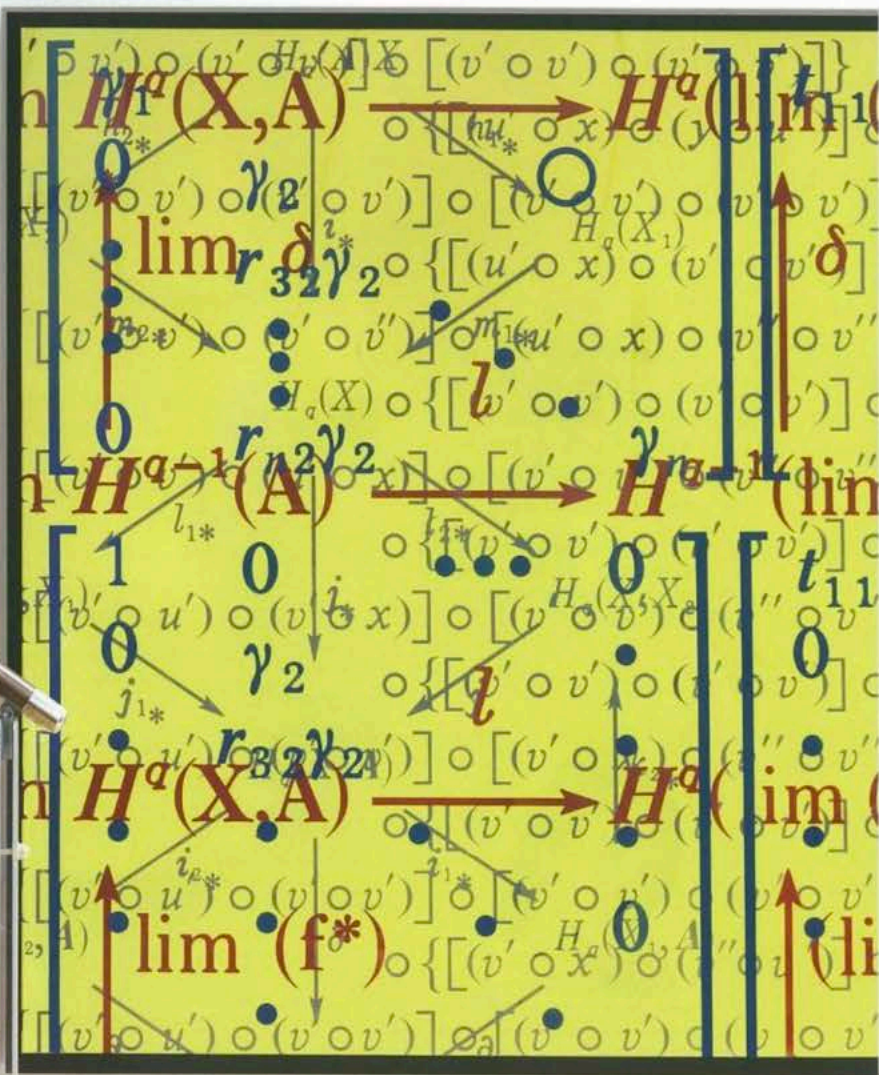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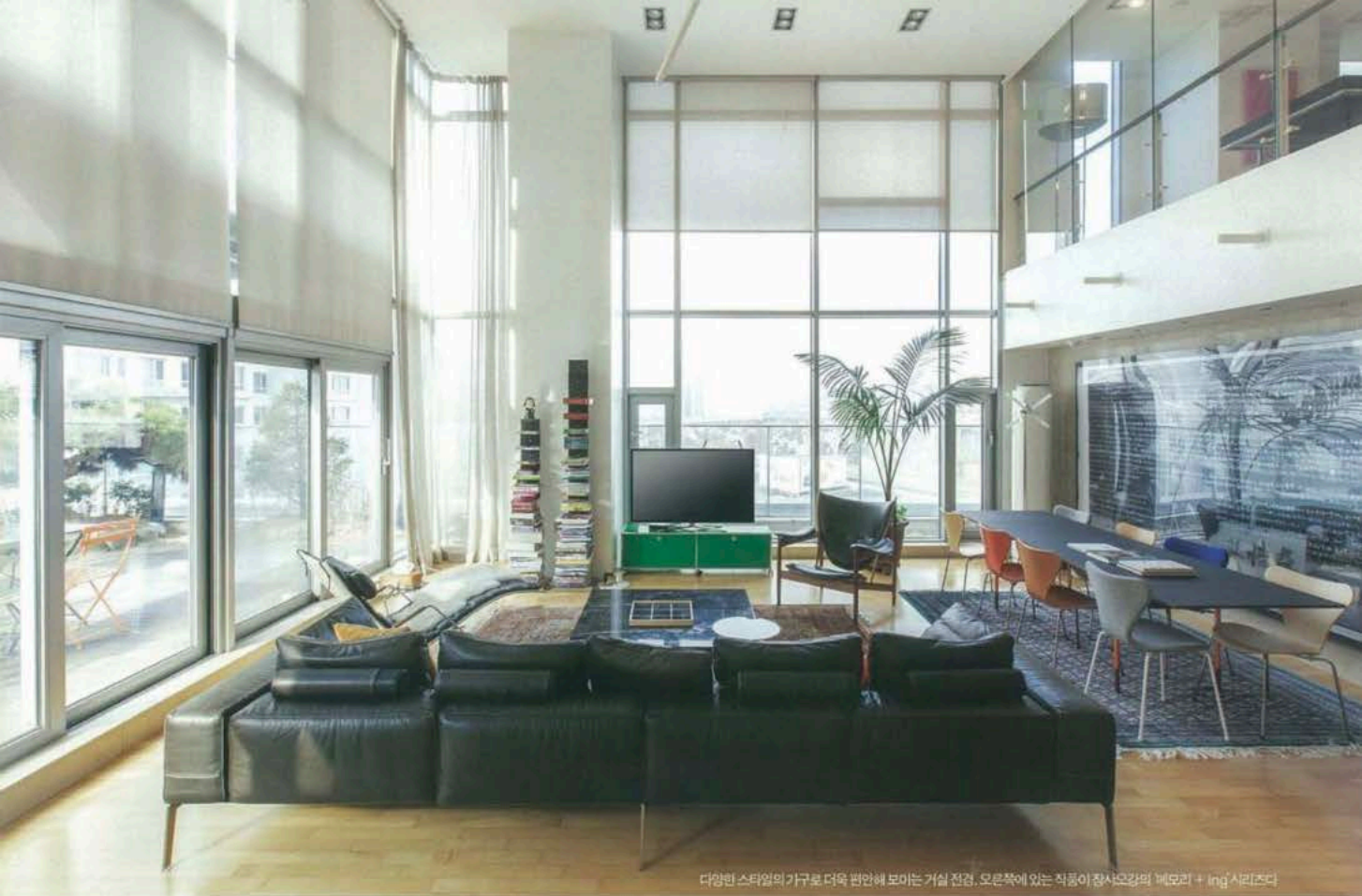


갤러리스트 이민주의 아트 하우스 동서고금의 조화로 아름다운 집

서초구 방배본동에 있는 갤러리스트 이민주의 집은 아파트 3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각 층을 디자인 가구와 아트 작품으로 채운, 무척 화려한 공간이지만 구석구석 편안한 느낌이다. 취재를 마칠 때쯤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비결은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의 조화에 있었다. 핀 율의 테이블과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의 지수 쿠션은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수학공식을 그림의 소재로 삼은 베르나르 브네의 작품은 이민주 씨가 오래전부터 꼭 갖고 싶어 한 작품 중 하나다.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로 더욱 편안해 보이는 거실 전경.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장사오강의 '메모리 + ing' 시리즈다

통의동 아트사이드 갤러리와 리안 갤러리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 갤러리 오픈을 준비 중인 이민주 씨는 '중국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중국 베이징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그녀는 예술에 관심이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미술관을 찾아다녔다.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 뉴욕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미술 시장은 중국 미술로 뜨거웠다. 장사오강, 웨민권 등 중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세계 컬렉션 시장과 경매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각광받을 때다. 아트사이드 갤러리는 중국 현대미술을 국내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소개한 곳 중 하나였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를 다 차지할 만큼 큰 장사오강의 작품은 당시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일하며 맺은 인연으로 구매한 것이다. 작품은 일견 거대한 철판에 쓴 일기장 같은 모습이다. '2007년 1월 15일 맑음'으로 시작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과가 중국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다. 빛바랜 흑백사진 속 가족을 그린 초기작과 달라 더 매력적이다. 아래쪽에는 만화 캐릭터처럼 묘사한 '소녀' 한 명을 감격한 느낌으로 그려 넣었는데 바로 이민주 씨다. "장사오강 작가가 1958년생이예요. 공산당 치하 시절과 문화혁명을 모두 겪었지요. 과거의 기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선보이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예요. 시리즈 타이틀이 '메모리 + ing'. 예전에 갖고 있던 '인민 수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지요. 즉흥적으로 쓴 일기를 모티프로 한 대형 작품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큐레이터로 동행했던 저와 함께한 일과도 적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지요."

이민주 씨의 집은 구조가 독특하다. 12층부터 14층까지 3개 층을 사용해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입주 후 레노베이션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구조로 분양했다. 그라운드 층 격인 12층은 거실로 사용한다. 바깥쪽으로 제법 큰 정원 겸 마당까지 딸려 있는 것이 특징. 아파트에 살다 보면 단독주택이 그리워지는데 원할 때면 언제든 마당으로 나갈 수 있으니 한결 만족스럽다. 13층은 다이닝 공간, 14층은 부부 침실과 아이들 방, 작은 응접실로 꾸몄다.

편울의 가구로 더 아늑한 집

거실에 값비싼 그림과 가구로 너무 '힘'을 주면 때로 불편한 느낌을 주지만 이민주 씨 집은 편안하고 아늑한 모습이다. 여기저기 앓을 공간이 많은 것이 그 이유다. 중앙에는 부드러운 가죽의 플렉스폼 소파가 있는데 피곤할 때면 꼭 쓰러져 잠들고 싶을 만큼 크고 넓다. 그녀의 인테리어 철학은 첫째도, 둘째도 편안함이다. 집은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값비싼 미술품 때문에 일상이 불편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플렉스폼을 비롯해 이탈리아 가구가 많은 것도 편안함과 관련이 깊다. "이탈리아 가구는 앉아 보고, 누워보면 '아, 정말 편하구나' 하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져요. 가죽도 부드러운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지요. '무게감'도 남달라요. 넓은 거실에 들여놓으면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지요. 몸집이 크고 가격도 비싸 죽을 때까지 써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드는 건 단점이예요(웃음). 북유럽 가구는 작고 기능적이라 이곳저곳, 기분에 따라 재배치하기 좋아요. 의자를 예로 들면 어느 날은 거실장 옆에 두었다가 또 어느 날은 침실



에 놓아도 잘 어울리지요. 움직이기도 쉽고요.”

소파 맞은편에 있는 핀 율의 가죽 의자는 존재감이 남달랐다. 덴마크의 국왕 프레데릭 9세가 편애한 의자로도 유명한 1949년작 치프턴(Chieftain, 유려한 곡선이 만드는 조형미가 뛰어난 테다 등받이와 팔걸이, 시트 모두를 크게 디자인해 위엄이 넘친다. 핀 율은 이민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다. “핀 율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디자인이 깨끗하고 간결하잖아요. 재치와 유머가 있고, 실용성도 탁월해요. 장사오강 작품 앞쪽에 둔 테이블 보이시죠? 저것도 핀 율 작품인데 접이식이라 4인용부터 8인용까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법 크지만 선이 간결해 어디에 놓아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핀 율의 가구는 다다미 응접실과 침실에도 있다. 응접실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가로로 길쭉한 테이블을, 응접실에는 펠리칸 체어를 두었다. 침실에 있는 책상도 핀 율 작품이다. 단정한 라인의 얇은 상판에 원형 철제 다리를 배치한 디자인. 모두 핀 율의 작품을 독점 제작하는 덴마크 원 컬렉션에서 만든 것이다. 이민주 씨는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핀 율의 집에도 다녀왔다. 마당이 딸린 흰색 단층집. 정원 쪽으로 낸 격자형 창문, 따뜻한 느낌의 가구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모은 작은 오브제가 조화를 이룬 공간은 포근하고 아름다웠다.

그라운드 층은 3개층 중 가장 넓은 공간답게 이밖에도 다양한 가구와 작품이 많다. 한쪽 모서리 공간에는 찰스 & 레이 임스의 수납장을 두었고,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 벽면에는 ‘수학 공식으로 아트를 만드는 작가’ 베르나르 브네의 회화를 걸었다. 천고가 높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천장에는 아테네 미테의 조명을 매달았다. 가늘고 길쭉한 막대 2개를 사선으로 겹쳐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 조각품처럼 보인다.

절묘한 인테리어의 비결은 소재와 색상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는 중간 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명이다. 특히 B&B 이탈리아 테이블 위에 매달린 루이스 폴센의 PH 시리즈는 오래 전 구해한 것이라 디자인도 독특하다. 철제 프레임 아래쪽으로 3개의 작은 갓과 전등을 매단 형태. 갓 부분을 유리로 만들어 이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마다 조심조심 주의를 해서인지 더 깊은 정이 들었다. 테이블 옆으로는 큰 스탠드 조명이 있는데 별다른 장식 없이 커다란 원반 형태의 건등만 강조한 디자인이라 더 임팩트가 있다. 가족이 한데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는 공간인 만큼 미술품은 밝고 화사한 것 위주로 골랐다. 줄리언 오피의 인물 회화는 간결한 라인만으로 신체를 표현해 율동감이 넘치고, 김민경 작가의 여인 부조 작품은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이 도드라진다.

꼭대기 층은 이 집에서 가장 개성 넘치는 공간이다. 다다미를 깔고 작은 응접실처럼 꾸민 곳. 포울 키에르홀름의 가죽 의자, 핀 율의 펠리칸 체어, 한복 디자이너 김영식의 목재 평상과 지수 쿠션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의 조화. “동서고금의 물건이 다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새것이 있으면 옛것도 있고, 북유럽 가구가 있으면 한국적인 소품도 있어야 하는 식이지요. 이탈리아 가구든, 북유럽 가구든 좋아하는 스타일을 중심으로 잡고, 작은 가구나 소품으로 변화를 줘보세요. 사고 싶은 제품이 기존 가구와 어울릴지 고민된다면 소재나 컬러를 맞추면 돼요. 고



1 핀 율의 테이블, 김희원 작가의 촛불 영상과 바네사 비크로프트의 사진이 인상적인 침실 공간. 2 다다미 응접실. 핀 율의 펠리칸 체어와 김영석 한복 디자이너의 평상이 잘 어울린다. 3 다다미 돌 전경. 4 계단 밑 공간에는 찰스 & 레이 임스의 수납장과 비트라의 MVS 세이즈(Chaise) 체어로 포인트를 주었다.





1 3층 복도에도 흰 물의 테이름을 놓았다. 흰 물은 이민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최근 교편하곤 근교에 있는 흰 물의 집까지 다녀왔다. 디자인 액자는 김희원 작가의 작품. 2 조명과 촛대로 장식한 벽면.



2

집합이 생기면서 큰 그림이 만들어지지요. 공간에 매력을 더하는 건 역시 아트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마음에 드는 그림을 산 후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찾아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잘 어울릴 거예요.” 그녀가 이곳에 건 그림은 정승혜 작가의 드로잉 작품. 손뜨개로 만든 스웨터 등 일상의 사물을 연필로 정교하게 묘사한 그림이 공간에 온기를 불어 넣는다. 나라 요시토모 특유의 섹스한 여자아이 그림도 ‘다다미가 있는 풍경’과 잘 어울린다. 그녀는 아이들이 놀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다다미를 떠올렸다면 스스로 직접 꾸민 공간이 많아 집이 모델하우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간에도 기운이란 게 있잖아요. 나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고 값비싼 미술 작품만 특목 걸어놓은 곳에서는 생기가 묻어나지 않지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직접 해보는 것이 남다른 인테리어를 꾸미는 비결 같아요.”

정석을 따르는 습관이 훌륭한 컬렉터를 만든다

아트 하우스를 취재하다 보면 몇몇 ‘규칙’이 발견되는데 그중 하나가 좋아하는 작품일수록 침실에 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집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 작품이 너무 커 거실로 옮겨야 할 상황만 아니라면 침대에 누워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 집에서는 김희원 작가의 ‘촛불 영상’이 그런 작품이다. 영상은 작가가 초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부터는 검은 화면에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만 느릿느릿 길게 이어진다. 영상의 끝은 초가 끝까지 타들어간 순간. 흠 파티를 할 때 주방 한쪽에 작품을 갖다놓으면 켜진 초의 길이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가늠하는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책상 뒤쪽으로 건 사진 작품은 다소 과격적이다. 유럽의 광장처럼 보이는 공간. 슈트 차림의 남성이 나체의 여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장의 사진이 한 세트인데 나체의 여인은 한 작품에서는 뒷모습을, 또 한 작품에서는 앞모습을 보이며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사진작가 바네사 비크로프트의 작품. 여성의 몸을 주제로 사회적, 생리적, 문화인류학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탐구하는 작가의 작품은 힘과 개성이 넘친다. 흰 물의 책상에 올려놓은 조명은 이상민 작가의 작품인데 이민주 씨는 “외국의 유명 조명 작가 작품과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하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정교하게 깎은 길쭉한 나무와 금속 막대만으로 완성한 테이블 램프. 작은 금속 스위치를 포함해 구석구석 간결함의 미학을 보여준다. 갤러리스트의 대화는 ‘좋은 컬렉터가 되는 법’으로 마무리됐다. 그녀는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작품을 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평소 눈여겨보던 작가가 갤러리에서 정식으로 개인전을 할 때예요. 작가가 오랫동안 열정을 갖고 준비한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무대인 만큼 이때 구매한 작품은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지요. 작가에게 따로 연락을 해 작품을 낮추는 것은 작가는 물론 본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저 작가는 굳이 갤러리를 통할 필요가 없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에디션 관리가 엉망이 되면서 미술 시장에서도 그 작품을 찾지 않게 됩니다.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통하는 곳이잖아요. 각 작품에는 인증서를 부여하고요. 정석대로 작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진짜’ 컬렉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글 정성갑 기자 | 사진 김규원 기자